단국대학교 2015학년도전형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답안

[문제 1] 다음 제시문은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글들이다. **(30점)**

1) [가]에서 자신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 한 개를 찾은 후, 그 단어에 기초하여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2) [가]에 토대하여 [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존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 설명하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입장에서 [다]에 나타난 삶의 문제점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나는 "오체 불만족"의 주인공 '오토다케 히로타다'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는 팔다리가 없지만 자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인생이 즐거워요."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걷지도,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루게릭병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애가 강하고 당당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자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진다.

우리를 진흙탕에 처박을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관계의 지름길이며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찡그린 표정에 항상 심각하고 잘 웃지도 않는다. 행동이 느리며 한숨을 자주 쉬고 목소리가 침울하다.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놈의 세상.", "안 될 걸 뭣하러 해?", "누가 날 좋아하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없으면서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출처: 한철우 외(2013), 『국어 (하)』, 비상교육, 97쪽.

[나]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 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중략)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출처: 박종호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I』, 창비, 307쪽.

[다] 당신 말이 옳아, 소냐. 이건 다 헛소리야, 정말 쓸데없는 말이지! 당신도 알지 (중략) 만일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10년 혹은 12년 뒤 사정이 나아지면, 나는 어쨌든 1천 루블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선생이나 관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걱정과 슬픔 때문에 말라비틀어지실 테니, 난 아무리 해도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릴 수가 없어. (중략) 자…… 그래서…… 노파의 돈을 빼앗은 다음, 그 돈을 처음 몇 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던 거야. 어머니를 괴롭히는 일도 없이 대학도 다니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사회에서의 첫 발을 보장받기 위해서 결심했던 거지. 이 모든 일을 확실하게 급속도로 해치워서, 완전히 새로운 출세의 길로 접어들자, 새롭고 독립적인 길로 나가자…….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

출처: 정재찬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 천재교과서, 299쪽.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의 상황을 근거로, 제시문 [다]에서 제시한 원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현재 외국인이 미국이나 일본에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 시에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 된다. 채취된 지문 정보는 테러리스트의 입국 방지와 외국인 체류 관리 및 범죄 발생 시 수사에 이용된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 제도를 외국인에게만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자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까지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출처: 최병모 외(2010),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3쪽.

[나]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출처: 김윤식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I』, 천재교육, 148쪽.

[다] 공리(功利, 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출처: 변순용 외(2010),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77쪽.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를 근거로 [다]의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라]의 화자가 보인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사회 과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이 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계량화(計量化)된 자료를 수집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빈부 격차는 지니 계수, 친구 간의 우정은 하루 평균 문자 횟수로 계량화하는 것이다. 양적 연구 방법은 탐구 대상을 수치화함으로써 객관적이며 정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 동기 등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출처: 박선웅 외(2013),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5~26쪽.

[나] 삶의 질은 생활 수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소득, 수명, 교육 등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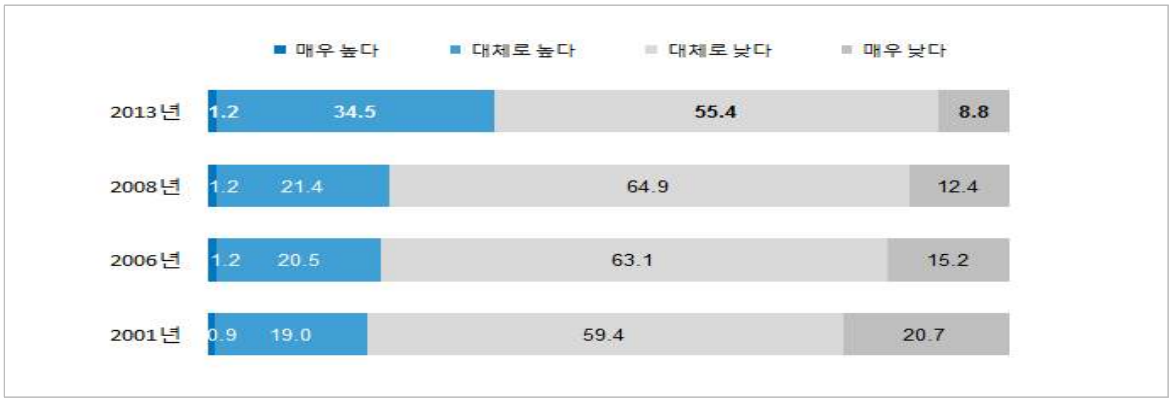
먼저 소득, 수명, 교육 등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의 연장은 사람들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자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준다.

소득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소득을 통해 생긴 경제력은 인간의 삶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나 여가 시간의 비중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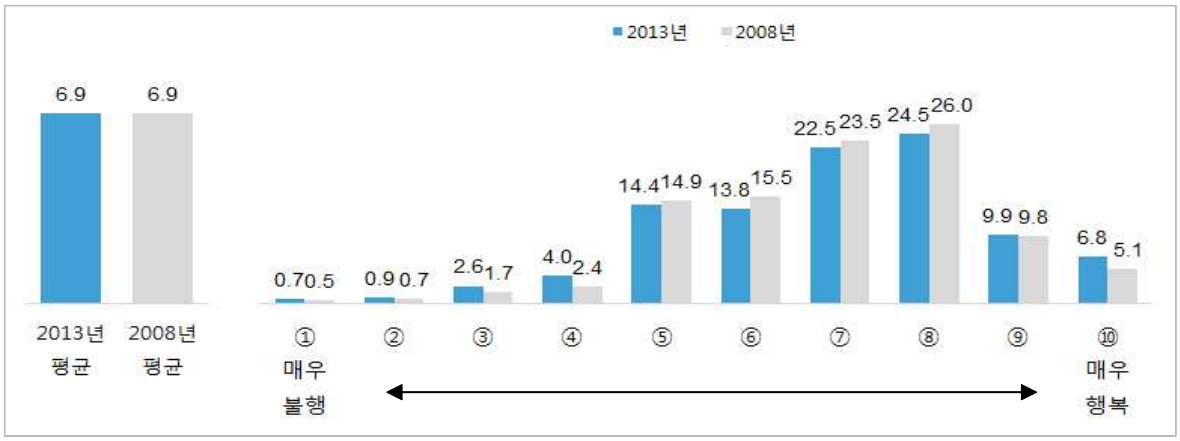
출처: 김종욱 외(2013),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268~269쪽.

[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주요 결과(조사 기관, 한국 리서치)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 (단위: %)



<행복 수준> (단위: %, 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보도 자료, 2013.12.18.

[라] 딸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 딸아이는 나에게 휴대 전화를 사 주었고 용돈이라며 십오만 원을 주었다. 첫 월급으로 사온 휴대 전화를 나에게 내밀 때, 딸아이는 노동과 임금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그 자랑스러움 속에는 풋것의 쑥스러움이 겹쳐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진부한 삶의 끝없는 순환에 안도하였다.

그 아이는 아마 월급쟁이로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진부하게, 꾸역꾸역 이어지는 이 삶의 일상성은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 그 진부한 일상성 속에 자지러지는 행복이나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이 거듭되는 순환과 반복은 얼마나 진지한 것인가. 나는 이 무사한 하루하루의 순환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랐고, 그것을 내 모든 행복으로 삼기로 했다.

출처: 최지현 외(2012), 『고등학교 문학 Ⅰ』, 지학사, 262~265쪽.

문제 1

□ 출제 의도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삶의 태도를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향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과 행복의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다.
○ 제시문 [나]는 자신을 태우고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존재로서 '연탄'을 묘사하고 있다. 희생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연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이타적인 삶이 곧 삶의 본질임을 깨닫게 된다.
○ 제시문 [다]에서의 화자는 자신과 자기 어머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노파)의 돈을 빼앗아 대학도 다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한철우 외(2013), 『국어 (하)』, 비상교육, 97쪽. <이민규, '나는 왜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
○ [나]: 박종호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I』, 창비, 307쪽. <안도현, '연탄 한 장'>
○ [다]: 정재찬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 천재교과서, 299쪽.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5점)

◈ 채점 기준
. [가]에서 '자기애'를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함
. '자기애' (가장 적절)
. 그 외의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단어로 답할 경우 (적절하지 않음)

○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일차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이어야 하며, 위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나]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함(5점)

◈ 채점 기준
. [나]에서 '연탄'을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함

○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삶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나]의 입장에서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당당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결국 이타적인 삶('연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나]는 '연탄'으로 상징되는 이타적인 삶을 삶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는 자신의 목적(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도('노파의 돈을 빼앗아') 서슴지 않는 이기심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음

□ 예시 답안

<1번 문항>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로 "자기애"를 찾을 수 있다. 자기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결함을 부끄럽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빠져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상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곧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인 것이다.

<2번 문항>
[가]에서 주장하는 바,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애"에 토대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존재의 모습은 [나]에서 "연탄"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 시에서 연탄은 자신을 태우고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다]의 화자는 자신과 자기 어머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노파)의 돈을 빼앗아 대학도 다니고 출세하려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연탄이 상징하는 바, 이타적 삶의 관점에서 볼 때 [다]에 나타난 삶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파괴하는 삶이라 할 것이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리주의를 정초한 벤담의 원론적 주장과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처럼 공동선과 개인적 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할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게 하였다.

○ 제시문 [가]는 자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지문 날인 제도' 사례이고, 제시문 [나]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미명 아래 진실 은폐의 문제를 다룬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이며, 제시문 [다]는 공리주의에 대한 벤담의 원론적인 글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 문제는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1. 생활과 윤리' 가운데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및 '2. 윤리와 사상' 중 "공동체와 연대"에서 다루어진다. 이 문제는 공동선의 추구와 개인적 선의 추구가 각기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자료 출처

○ [가]: 최병모 외(2010),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3쪽. <"Ⅶ. 인권 및 사회 정의 와 법" 중 '사례 활동'>

○ [나]: 김윤식 외(2013), 『고등학교 문학 II』, 천재교육, 148쪽. <이강백, '파수꾼'>

○ [다]: 변순용 외(2010),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77쪽.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 평가 기준

○ 제시문 [가]의 상황을 제시문 [다]의 원리가 제시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제시문 [가]의 상황을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분석하였으면 10점

· 제시문 [가]의 상황을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인 테러 위험이나 범죄 발생의 예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면 5점

· 제시문 [가]의 상황을 공리주의의 부정적인 면인 외국인의 인권 침해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면 5점

· 그 외의 경우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제시문 [나]의 상황을 제시문 [다]의 원리가 제시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제시문 [나]의 상황을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분석하였으면 10점
· 제시문 [나]의 상황을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인 마을의 안전 및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만 분석하였으면 5점
· 제시문 [나]의 상황을 공리주의의 부정적인 면인 진실 은폐나 파수꾼의 희생의 관점에서만 언급하면 5점
· 그 외의 경우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서술하였으면 5점
· 공리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서술하였으면 5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제시문 [가]는 자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입국 심사 시 외국인의 지문 날인 및 얼굴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국 심사 제도가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제시문 [나]는 마을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마을 사람들을 허위의 장막 속에 가두는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글이다.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입국 심사 제도는 미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외국인들에게는 부당한 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적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마을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진실의 왜곡을 정당화하고 깨어 있는 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는 이해 당사자의 이익과 행복 추구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그 의의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인권 침해나 불이익, 또는 진실의 호도나 왜곡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위의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리주의는 다수 집단의 이익 추구에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집단적 이기주의로 흐를 위험성 또한 안고 있는 이념인 것이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2009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른다.”, “나.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공간,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경험적인 자료와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사회 교과’의 목표와 2009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Ⅱ> 읽기 영역의 “(5) 문제 해결적 사고과정으로서의 독서의 특징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의 “(11)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 제시문 [가]는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의 하나인 양적 연구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시문 [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와 ‘행복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생활 수준’과는 달리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일은 어렵다. 소득, 수명, 교육 등은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측정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 제시문 [다]에서는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통계 자료에서 유의미한 것은 2008년도에 비해 2013년도의 ‘경제 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행복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두 가지 통계에서 다른 의미를 읽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행복 수준’과 관련한 통계에서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자료에서는 ‘매우 불행’과 ‘매우 행복’의 비중이 늘었음을 고려하여 ‘양극화’의 문제를 찾아내는 독자도 있을 수 있다.

○ 제시문 [라]에서는 ‘행복’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화자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제시문 [가], 제시문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제시문 [다]의 통계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하여, 제시문 [라]의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박선웅 외(2013),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5~26쪽.

○ [나]: 김종욱 외(2013),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268~269쪽

○ [다]의 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2013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주요 결과, 2013.12.18.

○ [라] 최지현 외(2012), 『고등학교 문학 Ⅰ』, 지학사, 262~265쪽. <김훈, ‘무사한 나날들’>

□ 평가 기준

○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가]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5점
. [나]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하나인 '삶의 질'과 '행복감'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의 성격을 이해하였으면 5점
. [가]와 [나]의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다]의 자료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평가함(15점)

◈ 채점 기준
. [다]의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의 표에서 2013년의 '대체로 높다'가 앞선 연도의 수치에 비해 높아졌음을 파악했으면 5점
. [다]의 '현재의 행복 수준'에서 2008년과 2013년 평균에서 변화가 없음을 파악했으면 5점
. [다]의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과 '현재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여 '사회 복지'와 '행복감'의 관계를 파악했으면 5점
※[다]에서 위에 서술한 의미 이외의 의미를 파악할 경우, 그에 대한 감점을 하지 않음
예)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에서 2001년, 2006년, 2008년, 2013년 사이의 연도별 변화 전체에 주목한 경우. 또는 '현재 행복 수준'에서 '매우 불행'과 '매우 행복'의 변화에 주목하여 '양극화 문제'를 논의한 경우 등

○ [라]의 화자의 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함(15점)

◈ 채점 기준
. [라]의 화자가 일상의 무탈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찾고, [가]와 [나]의 논지와 [다]의 해석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면 15점
. [라]의 화자가 일상의 무탈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나 [가]와 [나]의 논지와 [다]의 해석 자료가 유기성, 논리성을 잃고 있으면 10점
. [라]의 화자가 일상의 무탈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와 [나]의 논지와 [다]의 해석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면 5점
. 채점 기준과 관련하여 논리성, 유기성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예시 답안 1>
[가]에서 사회 과학의 지식이 양적 계량화에 의해 산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이나 '현재 행복 수준'을 산출한 것도, 양적 계량화에

따른 것이다. 양적 계량화를 위해서는 탐구 대상을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나]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소득, 수명, 교육 등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다]에 나타나는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이 높아짐에도 '행복 수준'의 변화가 없는 까닭도 어떤 요인을 대상으로 수치화하는가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 동기 등의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요인들은 수치화가 어렵다. 사회 복지 수준의 변화와 행복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의 경우 양적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행복이란 주관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 [라]의 화자가 일상의 무탈함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수치로 나타내려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라]의 화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예시 답안 2>

[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양적 연구 방법은 유용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 내면세계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나]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양적으로 계량화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계량화는 유용하지만,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다]의 표에서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이나 '행복 수준'을 측정한 방법도 양적 계량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복지 수준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해 행복 수준은 2008년과 2013년 모두 6.9로 변화가 없다. 오히려 '매우 불행하다'나 '매우 행복하다'와 같은 극단적인 항목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 복지 수준이 높아짐에도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행복감이 사회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의 화자가 딸아이가 사 준 휴대 전화와 용돈 15만 원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자칫 사회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